

# 공모주 대어 '슈퍼워크'... 두산로보틱스 등 수조원 몰리나

두산로보, 따따블 흥행관심 주목  
밀리의 서재 등 5개 기업 청약  
인기 플랫폼·반도체 관련 포함

두산로보틱스를 비롯해 밀리의 서재, 아이엠티 등 5개 기업이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공개(IPO) 슈퍼워크'가 시작된다. 일단 두산로보틱스가 시가총액 1조원을 웃도는 '공모주 대어'인데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플랫폼과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어 증거금으로만 수조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셋째주에 밀리의 서재, 아이엠티를 시작으로 한쌍과 레뷰코퍼레이션, 두산로보틱스가 연달아 일반 청약에 나선다.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증시에 로봇 열풍을 몰고 온 두산로보틱스다.

두산로보틱스는 국내 협동로봇 시장의 1위 기업이다. 협동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며 물리적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을 말한다. 아직 영업적자를 내고 있지만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500억원 이상' 유니콘 기업 특례 요건으로 코스피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두산로보틱스는

공모 자금을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과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제품군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청약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이며, 공모 예정가는 2만1000원에서 2만6000원이다. 상장 뒤 예상 시가총액은 상단 기준 1조6853억원 수준이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은 흥행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장 첫 날 얼마나 오를지도 관심사다. IPO 제도가 바뀌면서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까지 확대됐지만 아직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에 성공한 곳은 없었다. 만약 공모가가 최상단인 2만6000원으로 확정되고,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다면 최고 10만4000원도 가능하다.

이미 공모가 상단을 웃도는 목표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도 있다.

메리츠증권 배기연 연구원은 "연간 영업이익의 흑자전환시기는 2025년으로 예상하고, 2026년 예상 주당순이익(EPS)은 427원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며 적정주가로 2만9000원을 제시했다. 시가총액 1조9000억원 수준이다.

밀리의 서재와 레뷰코퍼레이션은 플랫폼 기업이다.

밀리의 서재는 구독형 독서플랫폼

으로는 국내 1위 업체다. 작년 매출액 458억원, 영업이익 42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공모가는 공모 예정가 상단인 2만3000원으로 확정했으며, 18일부터 이틀간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866억원 규모다.

레뷰코퍼레이션은 인플루언서와 국내외 기업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업체로 110만명 이상의 인플루언서 회원을 보유 중이다. 희망 공모가는 1만1500원에서 1만3200원으로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청약에 나선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아이엠티는 수요예측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당초 희망 공모가 상단이 1만2000원이었지만 수요예측 신청가격이 상단 초과가 대부분이라 1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한쌍은 융합보안 솔루션 전문업체로 공모 희망가는 8900원에서 1만1000원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IPO에 나선 기업들 가운데서는 2차 전지 관련주인 필에너지가 청약 경쟁률 1318대 1로 무려 15조8000억원에 달하는 증거금이 몰렸고,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인 기가비스도 증거금이 10조원 안팎에 달했다. 올 상반기 공모주의 평균 일반 청약 경쟁률은 586대 1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포스코인터, 3분기 호실적에 추가 상승 기대

metro 관심종목

에너지사업 투자로 높은 성장 전망

올들어 주가가 200% 이상 급등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 75% 증가한 9조4553억원, 3453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3분기에 호실적이 예상된 데다가 에너지사업 투자 본격화로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38% 오른 7만9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포스코그룹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맡은 포스코DX는 포스코퓨처엠과 제너럴모터스(GM)의 캐나다 퀘벡 합작 양극재 생산법인 '얼티엄캠' 1차 공장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약 500억원 규모의 계약



포스코인터내셔널 송도 본사 CI

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스코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포스코그룹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이 처음으로 해외 사업장에 적용된 것으로 이 같은 소식에 영향을 받아 포스코인터내셔널도 2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포스코그룹주가운데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주목하고 있다. 하반기 이후 급등세를 보인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대체로 7월 26일을 정점으로 40% 내외의 조정을 보였지만,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 내외의 조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관희 기자 wkh@

## 국내 증시 상승 전환에 테마주 '주춤'

코스피 14~15일 1% 상승 마감  
외국인 선물시장 2조원 순매수  
코스피 지수 2600선 탈환

약세를 이어오던 국내 증시가 상승 전환되자 테마주들은 주춤하고 있다. 투심이 대부분의 업종에 골고루 분포되면서 테마주로 몰렸던 종목 풀림이 개선된 모습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14일과 15일, 이틀 연속으로 1%대 상승 마감했다. 특히 15일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2조원 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탈환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28.39포인트(1.10%) 오른 2601.28에 장을 마쳤다.

최근 국내 증시는 혼조를 보이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코스피 지수는 11일 전장보다 9.20포인트(0.36%) 소폭 상승했지만, 이어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14일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0.2원 오른 1325.9원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28.39포인트(1.10%) 상승한 2601.28, 코스닥 지수는 0.44포인트(0.05%) 하락한 899.03에 마감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과 15일에는 1%대의 상승률을 연속으로 기록하면서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스권 흐름이 내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증시 약세 속에서 테마주 입질은 지속됐다.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대표적인 로봇주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22.2% 올랐지만, 증시 상승세가 유지됐던 15일에는 8.4% 급락했다. 제약·바이오주인 셀트리온제약도 동일 기간 10.5% 정도 상승하고, 15일에는 0.43%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박수진 미래셋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와 로보틱스, 제약 바이오 업종이 하락하며 900선을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증시 개선과 함께 업종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부진한 시기에 빛을 봤던 테마주들이 주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의약품(-0.24%)을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이 올랐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오랜만에 투자심리가 강한 모습 보이며 거의 모든 업종이 오르다 보니, 최근의 지수 정체 기간 동안 인기를 끌었던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식어버리는 상황이 전개됐다"며 증시가 강해지면서 테마주 관심은 시들해졌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서울 아파트값 17주째 상승...오름폭 확대

신축 선호 단지 위주, 매수 문의 꾸준

최근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는 2주간의 하락세를 끝내고 상승 전환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1%) 대비 0.13%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돼 17주 연속 오름세다. 지난 2주간 상승폭 둔화 현상을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은 다시 커졌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성동구(0.10%→0.19%)가 행당·응봉동 중소형 평형, 중구(0.11%→0.18%)는 신당·황학동, 용산구(0.17%→0.18%)는 이촌·산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김대환 기자

## 9월 셋째 주, 전국서 2129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서울 관악구 등 견본주택 4곳 오픈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2129가구(일반분양 110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유보라마크뷰', 부산 남구 대연동 '더비치푸르지오써밋',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금호어울림더퍼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힐

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보문센트럴아이파크', 경기 오산시 별음동 '호반써밋라프리미어' 등 4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부산 남구 대연동 일원에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을 통해 '더비치푸르지오써밋'을 분양한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일원에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보문센트럴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 현대건설, 동유럽 SMR 진출 본격화

SMR·원전사업 확대 계획

현대건설이 폴란드 크리니차 경제 포럼에 민관 합동 한국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동유럽 주요국과 가진 회담장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

대한 진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폴란드 크리니차 경제포럼에는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원전,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등 주요 의제들이 논의된 가운데 K

원전사업 경쟁력에 기반한 SMR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은 당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현대건설은 동유럽 진출을 위한 전초기로서 연내 바르샤바에 지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김대환 기자 kdh@